

광주신세계 '직거래장터' 농가소득 이끈다

'전남도 특산물 상생장터' 매출 목표 150% 달성...전국 확대 대구신세계, 전남 특산물 '영호남 상생장터' 25일까지 진행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등 판로가 막힌 지역 농어가들이 백화점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며 새로운 소득을 내고 있다. 광주신세계 '직거래 장터' 상생 행보는 대구를 거쳐 부산, 서울 등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2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4-5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남도 명품 특산물 직거래 상생장터'가 올린 매출은 4월 1억8600만원, 5월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150%에 달하는 매출 실적이다. 전남 농산물 품질에 대한 입소문이 돌면서 곡성 사과와 멜론, 무안 양파즙 등 일부 품목은 빨리 품절되는 등 예상치 못한

좋은 실적을 거뒀다는 게 신세계 측 설명이다. 전남 농수특산물의 매출 확대를 위한 취지에 맞게 신세계 측은 유통마진을 4분의 1 가량 줄였다. 광주신세계는 이 같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신세계백화점이 전남지역 농수특산물 판매망 역할을 하는 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신세계와 전남도가 맺은 '전남도 농수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에 따라 이달 대구신세계에서 첫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다. 대구신세계는 전남 시·군별 대표 농수특산물 100여 품목을 만날 수 있는 '영호남 상생 직거래장터'를 오는 25일까지 진

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여수 돌산갯김치와 순천 매실, 담양 요거트, 곡성 멜론, 구례 초당옥수수, 보성 녹용진액, 화순 떡, 강진 버섯, 영광 굴비, 진도 울금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시중가격 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광주신세계는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광주에서도 '영호남 상생 직거래장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 농수특산물은 대구 뿐만 아니라 부산 센텀시티점과 서울 강남점 등지에서 전국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다. 특히 전남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올해 출시된 아열대 농산물 브랜드 '오매향' 애플망고는 신세계백화점 모든 점포에서 연내 납품된다. 광주신세계가 매입하는 지역 신선상품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80%에 달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호남 농수특산물 산지 직거래 행사' 계획을 세우고 연간 1억~1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직접 발굴한 농가로부터 유통 마진 없이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서는 무안, 영암 등 전남 시·군별 '명품 농특산물'을 열어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지역 농가에 안정적 수입을 제공하는 선순환을 이어오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대부분의 농산물 기획전이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과 달리 직접 상품 발굴에 나서고 홍보·판매를 강화한 결과 이번 직거래 장터는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광주신세계는 전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확보해 고객 만족을 높이고 지역 농가는 지속적인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현대차그룹, 정부·지자체·금융권 손잡고 저신용 자동차 부품사 대규모 금융지원

현대차그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등과 손잡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사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3500억원 규모의 산업·기업은행 '동반성장펀드' ▲24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기금 '상생특별보증'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상생특별보증' ▲3000억원 규모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정업체 납품 대금 담보부 대출'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금융 프로그램에 총 12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동반성장펀드' 시행을 위해 1000억원을 예치하고, '상생특별보증' 프로그램에 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납입한다. '원정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에 대해서는 협력사들이 금융지원을 원활히 받

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에 나선 것은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처를 보유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겪는 코로나19 피해를 막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부품사들은 자동차 수출이 급감에 해외 자동차 생산 중단 등으로 부품 공급량이 감소한 탓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전체 부품사의 80%인 저신용 부품사들은 운영 자금 확보가 어려운 자금난에 직면하는 등 위험이 큰 상황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강력한 기반인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경영이 안정화돼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다"며 "이번 금융 프로그램이 저신용 중소 부품사들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3~4월보다 경영악화' 45% 대한상의 제조업체 설문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제조업체 30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기업 대응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5.2%가 3~4월보다 '현재 경영여건이 더 악화했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3~4월보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46.3%였고, '개선했다'는 답변은 8.5%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철강·조선 순으로 '악화했다'는 응답이 많았던 반면 제약·기계 등은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어려움으로는 '수출'(29.2%)이 꼽혔다. 이어 '자금난'(27.3%), '내수 판매'(24.0%), '조달·생산'(8.8%), '고용유지'(8.8%)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올해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10곳 중 8곳에 달했다. /연합뉴스



"오노마 화장품 써보세요" 21일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 시코르 매장을 찾은 한 고객이 신세계가 지난달 처음 선보인 자체 K뷰티 브랜드 '오노마' 화장품을 사용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산업진흥회, 우수조달공통상표 2022년 5개 추가 목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오는 2022년까지 5개의 추가 물품 지정용 목표로 우수조달 공통상표 지정품목을 늘리는 등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19일간 광융합산업 기업 대상 조달청 수요가 많은 필요품목 수요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진흥회에 따르면 광융합산업 공동 브랜드(LUXKO·럭스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럭스코 참여기업의 최근 3개간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조달공통상표로 등록된 LED 터널등기구 분야가 38.25% 증가했고, 방폭등기구 분야는 15.6% 매출이 올랐다. 우수조달공통상표로 지정받을 경우 정부 구매시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럭스코 품목 중 2개 품목, 71개(방폭등기구 제품 56개, LED터널등기구 제품 15개) 제품이 우수조달공통상표 물품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물품은 공공조달을 통해 34억6000만원의 계약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에 따라 진흥회는 공동브랜드 관리 협의회를 통해 사업범위는 물론, 광주 시 LED조명기기 중심에서 전국 광융합 제품으로 사업대상도 넓혀겠다는 구상이다. 또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럭스코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국제협력 사업에 럭스코 인증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광통신 및 LED분야 해외프로젝트에 공급할 제품에 대해서도 럭스코 인증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럭스코 제품군 연계 해외 공동 사범설치, 공동브랜드 광융합산업 분과위원회 구성, 글로벌 공동브랜드 규격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브랜드 경쟁력 측면에서 럭스코의 효용성이 입증되는 등 전국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해외진출지원 사업과 유기적 지원을 통해 럭스코가 세계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로또복권 (제91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수	
6 21 22 32 35 36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25,384,341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045,781	70
3 5개 숫자일치	1,700,186	2,184
4 4개 숫자일치	50,000	111,426
5 3개 숫자일치	5,000	1,857,917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 값 4주 연속 상승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4주 연속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지역 보통 휘발유 1당 평균 가격은 광주 1325원·전남 1323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1.69원, 1.16원 올랐다.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유가 폭락 등 영향으로 1월부터 넉 달 넘게 하락하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5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5월 셋째 주 광주 휘발유 가격은 1당 1239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1244원(넷째 주)→1254원(6월 첫째 주)→1286원(6월 둘째 주)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휘발유 가격도 5월 셋째 주 1258원, 넷째 주 1269원, 6월 첫째 주 1269원, 둘째 주 1290원 등 오르고 있다. 21일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가운데 보통 휘발유 최저가는 광산구 소촌동(1당 1229원)에 있었고 최고가는 동구 학동(143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함평군 손불면 주유소가 1당 123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팔았고, 완도군 소안면 주유소는 최고가 1600원을 기록했다. 이날 경우 가격은 1당 광주 1128원·전남 1127원으로 전남보다 각각 0.98원, 1.11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

중기부, AI기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사업 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과제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AI 기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이미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개발 완료 단계의 시제품에 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신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중기부는 22일부터 7월1일까지 과제를 모집한 뒤 올 9월까지 50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